

“운전 자주 하지않는 車 보험 가입자 최대 42% 깎아준다”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 車사용시
마일리지·승용차 요일제 특약 가입하는게 유리
임신·만5~9세이하 자녀할인 특약 4~10% 할인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는 특약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이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1만~2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2%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이 커지는 만큼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가입자

에게 유리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준다. 평일에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만 5~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라도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알맞

게 조정해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에 가입해 실제 운전하는 사람으로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다면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운전 중 사고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서비스 가입비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7%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된 상태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광주신세계, 세계 각국 리빙제품 제안 키친&다이닝 페어 개최...25일까지 최대 70% 할인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맛을 더해주는 테이블웨어와 매력 넘치는 주방용품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키친 앤 다이닝 페어'를 개최한다. '키친 앤 다이닝 페어'는 디자인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한 세계

미한 테이블웨어 브랜드 '코페다블', 독일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헨켈'과 종합 생활용품 전문브랜드 '네팔'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다채로운 테이블웨어&주방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팔'의 쏘 인텐시브 프라이팬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헨켈' 역시 5스타, 4스타 블록 세트를 신년특가로 50~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WMF는 소형가전 런칭 기념으로 가전제품에 대해 20% 할인을 진행하며, 50만원 이상 구매 시 과일 밀폐사각 3중세트를 증정한다. '닥터하우스'의 아가자기한 조리도구 1만원 균일가전도 준비되어 있다. 페어 기간 중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실리트' 창립 28주년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 스테인리스 냄비나 실리트 자체개발 신소재인 실리칸 냄비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같은 장소에서 '넬비' 특별 할인'도 열린다. 클래식 라인과 헤리티지 라인의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김연숙 기자

지난해 11월 전남 굴·김 어업생산량 큰 폭 증가

양식작황 양호·안정된 해황 요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9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전남도 어업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면 총 생산량은 5만 634t으로 전년 동월 2만948t보다 2만686t(91.1%)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해면어업이 1만

5874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9%(2294t) 증가했으며, 전해양식어업은 3만1996t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7%(2만1463t) 늘어났다. 일반해면어업 주요 증가 품종은 멸치로 41.3%(1251t) 증가했다. 멸치는 남해 중부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기선권현망과 정치망, 연안등망 어업 호조로 생산량이 늘었

다. 전 해양식어업은 굴류 159.4%(5488t), 김류 164.3%(9682t) 각각 증가했다. 굴류는 양식작황이 양호하고 월하굴의 수확이 증가해 생산량이 늘었으며, 김류는 시설면적 증가와 채포 이후 안정된 해황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11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 23만1919t의 24.3%를 점유했다. 최용규 기자

쉐보레 볼트EV 사전계약, 3시간만에 매진

쉐보레 볼트 전기차(EV)가 사전계약 3시간만에 매진됐다. 한국지엠은 18일 "볼트EV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3시간만에 올해 도입분량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볼트EV는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웠다. 쉐보레는 올해 볼트EV 국내 도입 분량을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5000여대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난 15일 사전계약을 접수받기 시작했으나 계약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17일 오전 9시에 다시 계약 접수를 시작했다. 볼트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고강성 경량 차체에 60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했다. 204마력의 최대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볼트EV는 지난해 북미시장 출



시와 동시에 '2017 북미 올해의 차', '2017 그린카 오브 더 이어', '미국 모터트렌드 2017 올해의 차' 등 권위 있는 상을 차례로 수상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친환경 부문 2018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다. 2018 볼트EV의 가격은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보조금 개선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볼트EV는 최대치인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올해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뉴시스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소셜커머스가 가장 저렴

약국이 가장 비싸...온라인 평균가격 1407원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백화점·대형마트·약국 등 오프라인보다 평균 36%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소비자공간네트워크에 따르면 3M 3M넥스케어와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한셀 '벨킵스' 등의 온라인 평균 가격은 1407원으로 오프

라인의 2192원에 비해 36% 저렴하다. 온라인은 소셜커머스, 홈쇼핑, 대형마트·백화점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이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옵션은 가격 비교과정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판매 채널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소셜커머스(1288원)다. 대

형마트 인터넷몰(1415원) 백화점 인터넷몰(1450원) 홈쇼핑몰(1524원) 등의 순이다. 반면 약국·편의점·일반슈퍼·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중 약국이 2855원으로 마스크 가격이 가장 비쌌다. 편의점이 2994원이었고 일반슈퍼 2102원, 백화점 2033원, 대형마트 1923원 등이었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